

미래 대한민국 트렌드와 기업경영

이윤호 원장, LG 경제연구원

미래에 빚어질 일 중 지속적이고 중요하게 일어날 일을 '트렌드'라고 하며, 이러한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신의 영역인 만큼 끊임없이 연구해야 한다.

LG경제연구원에서 금년에 '2010 대한민국 트렌드'라는 책을 출판했는데, 석 달 반 동안 10만 권이 팔렸다. 불경기에 이 정도 팔린 것은 출판계의 기록일 정도다. 미래를 내다본다는 것은 신의 영역이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러한 영역에 도전한다. 과거 그리스 역사를 봐도 '텔파이'라고 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기법이 있었다. 과거나 현재나 트렌드는 무시할 수 없고 끊임없이 연구해야 하는 것 중의 하나이다.

트렌드란 무엇인가?

논리적, 추세적으로 볼 때 향후 중장기 미래를 변화시키는데 크게 영향을 미칠 동인이다. 트렌드 추출은 과거와 현재의 연장선상에서 미래를 설명하기 위해 추세적인 방향을 파악하는 작업으로 중장기 작업인만큼 연구자 개인의 직관과 안목이 다소 개입할 수밖에 없다.

지속적으로 일어날 현상, 강화될 현상, 잠시 나타났다가 없어질 현상 중 현실화 될 수도 있고,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다. 트렌드로 있다 죽어버리는 것을 유행이라고 간단하게 말한다.

LG경제연구원에서는 미래를 빚어낼 여러 불확실한 상황 중 개연성과 중요성이 높은 것들로 트렌드를 추려내었다. 이 과정에서 트렌드이긴 하지만 중요도가 낮은 것은 선택하지 않았다.

2010년 대한민국 트렌드 구성은 7개 범주로 묶어 81개로 구성하였으며 경영, 산업기술, 국내경제, 소비, 사회와 문화, 인구와 세대, 글로벌 변수 등으로 구분하였다. 여기서 다시 10개 트렌드로 추출하였는데, 미래사회에 중요하게 부각될 내용을 상세히 살펴 보겠다.

첫 번째 저성장 시대의 도래이다. 우리경제가 저성장 시대로 접어들었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지난 10년간 7%대 성장을 하였으며, 경제성장이 끝났다는 직설적인 결론도 제기되고 있다. 노동공급과 자본공급은 이미 한계에 도달했다. 이제 기댈 곳은 총요소생산성이라고 하는 생산성 증가분야이다. 이는 기술로 포괄하는 분야로 사회 시스템까지 포괄하는 기점으로 이해해야 한다.

지금과 같은 정치, 행정시스템이나 의식구조로는 선진국 진입이 어렵다. 총요소생산성은 사회 총체적인 능력이고 수준이다. 이는 고소득 선진국으로 가는 열쇠이다.

과거 40여 년 동안 연평균 인구증가율은 2.4%로

미래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트렌드 중 하나가 바로 저성장시대의 도래이며 이러한 상황에 맞는 효과적인 가계 소비, 기업경영, 국정목표가 필요하다. 저성장시대에는 소득양극화를 비롯해 위험을 최소화하려는 경향, 간접투자 확대 등이 나타난다. 우리보다 일찍이 이러한 과정을 거친 선진국에서는 부의 세습을 차단하는 상속증여세 현실화, 기부문화의 확산 등으로 사회갈등을 최소화한 사례들이 많다.

취업자수는 매년 2.8% 증가하였다. 이는 국민총생산 성장의 2.8%가 노동공급에 의해서만 성장했다는 것이다. 1971~2000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은 12.4%로, 총요소생산성 증가도 연평균 1.7%였다.

인구는 2020년부터 감소하며 특히 15~64세 생산 활동인구는 2010년 감소하며 20세부터 55세 정도의 액티브한 노동시장 주력부대는 2008년부터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2001~2004년까지 설비투자는 연평균 0.3%에 불과하며, 노동과 자본에서도 문제가 생긴 만큼 이제는 총요소생산성에서 활로를 찾아야 한다.

개인적으로 보면 운이 좋을 경우 60세까지 일할 수 있는데 평균수명연장으로 나머지 30년을 어떻게 보낼 것인지 고민하게 된다. 이처럼 개인은 평생소득 흐름에 맞춘 평생소비계획 수립이 절실했던 것이다.

기업들은 성장이 둔화되고 수익률이 낮아져 돌파구를 찾기 위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한다.

정부는 이노베이션에 집중적인 투자를 하며, 과학 기술, 교육, 의료보건, 관광 등 서비스산업의 혁신을 단행하게 된다.

저성장시대 트렌드 중 하나는 소득양극화 심화로 인해 사회 전체적으로 위험을 기피하는 경향이 두드러지는 것이다. 인구구조를 비롯해 사회시스템의 노쇠화가 발생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100만 달러 금융자산가는 2003년에만 6만5천 명이다. 이에 반해 기초 생활보호대상자는 한해 5만 명꼴로 나타나고 있다. 타 국가와 비교했을 때 우리의 소득양극화는 큰

편은 아니지만 우리의 폐쇄적인 인식으로 인해 사회 불안과 갈등요인이 잠재하고 있다.

위험기피 현상 중 하나로 결혼정보업체에서 성사되는 커플을 조사했더니, 정부나 공사 출신이 대다수였다. 그만큼 안정된 신랑감을 원한다는 것이다.

투자의 기대 수익은 점점 낮아지고, 투자해서 돈을 벌어도 사회적 인정을 받지 못한다. 우리사회에서 부의 축적은 부정확한 방법으로, 뭔가 구린데가 있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

투자의 기대수익은 낮은 반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등 징벌은 오히려 강화되고 있다. 과거에는 정보 부족 등으로 인해 부도업체가 발생해도 확인이 불가능했지만 현재는 버튼 하나로 거의 모든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대학도 법대, 의대 등 안정적인 학과가 인기가 높다. 이는 투입에 비해 성공할 경우 받는 이익이 많기 때문인데 당연히 '사'자 배출이 많으며 이로 인해 공급과잉 상태로 돌입하였다.

최근에 적립식 펀드가 활기를 띠는 등 간접투자 시장이 열렸으며 재무설계사 같은 이들이 각광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주택소비에 있어서도 저성장으로 인해 리스크를 피하고, 평생주택 소비 사이클이 등장하여 주택마련을 위해 돈을 벌고,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주택을 마련한 뒤 다시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려서 나중에 갚는 모기지론, 역모기지론이 활성화될 것이다.

선진국에서는 저성장시대에 고성장에 대한 막연한

외환규제 등 빗장이 풀리면서 국내 자산의 월경현상이 빈번해 질 것인데 이는 성장잠재력을 훼손하는 단점도 있지만 한국경제의 글로벌화를 높이는 다양한 촉매제 작용도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국의 부상과 아시아의 성장은 우리나라에 위협과 기회를 동시에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기대를 배제하기 위해 상속증여세, 기부문화를 활성화시키고 세금혜택도 많이 줬다. 이는 약자와 함께 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사회적 저항을 줄이기 위한 방편이다.

미국 부시정부는 최근 상속세 철폐를 정책으로 세웠으나 부자들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혔다.

‘한국 땅이 비좁다’는 이른바 한국탈출도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외환규제 등 빗장이 풀리면서 월경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성장잠재력이 훼손되지만 한국경제의 도약을 위해 거쳐야 하는 관문으로 인식해 수용하고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한국에서 외국으로 서비스를 수요 하러 나가는 움직임이 강화된다. 치료를 위해, 골프여행을 위해, 관광을 위해, 교육이나 연수를 위해 외국으로 나가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하지만 한번 움직이면 애초 목적을 넘어 수요가 커지게 된다. 만약 한 집안의 가장이 외국에서 치료를 받는다고 가정할 경우, 그의 부인이 동행할 것이며 아이들이 병문안을 가게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당 국가에서는 이러한 소비계층을 위한 서비스를 마련하여 수입을 창출하려 할 것이다.

의료를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면, 많은 설문조사에서 현재 우리의료에 문제를 느껴 외국에서 의료를 받겠다는 의견이 다수이다. 한 태국병원은 14개 나라말로 홈페이지에 홍보를 하고 있으며, 상해에는 한국, 일본, 동남아 사람들을 겨냥한 의료특구가 생긴다. 상황이 이러하지만 우리의 의료현실은 개방

절대불가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

개인 자금 유출도 급증하고 있다. 관광, 유학, 연수, 개인 증여 등이 해마다 늘고 있다. 외국 동포가 국내 자산을 처분해 모국으로 돌아가는 등 일년에 235억 달러가 유출되고 있지만 정부는 환율압력으로 물꼬를 틀 수 밖에 없는 입장이다.

또 하나는 저개발 시장을 앞으로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라는 문제인데, 이것 또한 등한시 할 것은 아니다. 생활용품을 제조해 판매하는 세계적 기업인 유니레버는 힌두스탄레버라는 공장을 인도에 차렸다. 이 회사의 일년 매출액은 25억 달러로 이들은 1센트, 10센트짜리 치약이나 칫솔을 만들어 판매한다. 인도는 나라의 특성에 맞게 물건을 제조해 판매하는 것으로 소득수준이 낮지만 하이브랜드만 갖고 팔아야 한다는 사고를 전환시킨 경우이며, 저개발국가라고 해서 시장이 취약하지는 않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준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즉, 저소득 인구가 많은 곳도 성장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매출 성장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앵글로 색슨족이 최고라는 인식이 팽배했지만 최근에는 이러한 외국인관에 변화가 생기고 있다. 한 개그 프로에서 블랑카로 등장하는 외국인 노동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친근함을 느끼게 된다. 이는 외국인을 보는 시각에 어느 정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조선족 모방개그, 태국 노동자들의 직업병 발병에 대한 사회적 공분 등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동안 폐쇄적, 민족주의적인 우리사회 인식에 코스모폴리탄적 변화가 야기되고 있다. 이런 인식을 거부할수록 마이너스로 전락하게 된다.

한 해 수만 명의 조기유학자가 해외생활을 체험하는 만큼 월경현상은 불가항력적이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정치, 국방, 경제적 안정과 제조업 경쟁력을 살리는 것이 남미형 자본탈출을 막는 첩경이다. 정부입장에서는 자본의 자유로운 유·출입을 풀어주는 것이 정책방향에 맞지만, 감내하는 것이 더 올바른지 검토해야 한다. 이는 잘못되면 남용되고 잘되면 경제의 촉진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양면의 칼과 같다.

세계의 공장이자 신소비대국인 중국은 우리에게 위협과 기회를 동시에 주는 나라이다. 최근 상해 모터쇼에서 중국 갑부가 엄청나게 비싼 차를 두 대씩이나 구입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이른바 초 소득계층이 5억 대도시 인구의 1%를 차지하며 정원사, 가정부, 외제차, 명품쇼핑, 수영장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8년마다 경제규모가 두 배로 되는 중국을 필두로 인도 등 아시아 경제권이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25년에 50%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하지만 중국만 보더라도 규모가 큰 만큼 문제도 많고, 또한 이질적인 요소도 많아 큰 성장은 기대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중국은 무시할 수 없는 경제대국이라는 점이다. 최근 중국기업은 왕성한 해외진출을 꾀하고 있다. 렌샹 레노보의 IBM 컴퓨터 사업부분을 인수하였고, TCL의 톰슨과 제휴하였으며 최근

에는 우리기업인 쌍용이 상하이 자동차로 넘어갔다. 중국은 금권과 인권을 동원해 해외로 진출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중국이지만 우리나라에는 '중국 연구소' 하나 없는 등 대비가 부족하다. 현재 돌아가는 판세대로라면 굉장히 중요하게 중국을 연구하는 막강한 연구소 하나쯤은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며, 역사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남한이 중국과 관계를 단절한 것은 일본이 강점한 100년이 전부이다. 역사적으로도 두 나라 간 교류는 활발했었다.

사회전반의 고령화로 인해 경제력도 갖고, 정치적 파워도 대단한 액티브한 세대가 출현할 것이다. 이에 맞춰 가족제도, 고용방식에도 변화가 올 것이며 성장 산업이나 시장판도도 바뀔 것이다.

대표적인 예로 한국의 7인 가족을 생각해보자. 아들딸 구별 없이 하나만 낳고 있다. 할아버지 내외, 외할아버지 내외, 부모까지 한 아이에게 무려 6명이 붙어서 그야말로 소황제처럼 키운다. 문제는 이 아이가 커서 어떻게 6명을 부양하느냐 하는 문제이다. 저출산이 사회적 문제로 되고 있다. 현재 젊은 세대 여자들은 정부에서 지원을 해 준다고 해도 아이를 낳겠다는 생각이 거의 없다.

이처럼 나라 자체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시니어 세대를 중심으로 한 상글리라 신드롬이 일고 있다. 젊고 활기차게 늙고 싶다는 것으로 이들을 겨냥한 산업이 중요하게 부상하고 있으며, 특히나 늙지 않고 젊어 보이게 하는 각종 기술과 물품들이 바이오

M A N A G E M E N T

와 병행되어 시장성이 있을 것이다.

이러다보면 교육 키즈 산업이 가장 먼저 침체 현상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한 아이를 마치 소환제처럼 키우고 교육시키려는 욕심 때문에 이 시장의 성장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기업은 5~10년 후면 인력 확보에 빨간불이 들어올 것이다. 지금은 청년실업으로 인력이 남아돌지만 향후에는 잘 교육받은 인력이 부족해 역전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하지만 이는 단순인력이 아닌 전문 인력에 한해서다. 이렇게 되면 각 기업에서는 우수 인력에 한해 정년을 연장시켜 주는 등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기술진보는 어느 쪽으로 될 것인지 예상하기 어렵다. 전자화폐가 생활화 될 것이다. 뱅크온, T머니 등이 그러한 종류이다. 향후 5년 뒤인 2010년 총 거래의 60%를 전자화폐가 담당할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또한 전문가들은 2010년경 인터넷과 텔레비전, 전화가 하나로 구성되는 트리플서비스(TPS)의 등장을 예고하고 있다. 또한 2010년경에는 인터넷 전화가 기존의 전화를 대체할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 시각이다.

과거 새롬기술에서 출시했던 다이얼 패드의 경우 500원에서 시작한 주가가 엄청나게 뛰었던 적이 있다. 당시 양방향 통신이 가능하지 않아 대중적인 확산이 어려웠지만 현재는 가능해졌다. 비견한 예로 일본 인터넷 전화인 비비폰은 인구의 12%를 잠식하는 등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2010년이면 기존 전화를 대체할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 폰은 기

존 전화에 비해 가격이 싸다.

로봇은 진행될수록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 청소용은 원판으로 나오는 등 생김새도 용도에 따라 다양하게 출시될 것이다. 미국의 가정용 청소로봇은 100만 대가 팔렸다. 세계적인 로봇 회사 회장이 한국을 방문하여 '한국은 너무 사람다운 로봇을 구상하려고 한다'는 지적을 했다. 한번 생각해 볼 일이다.

하이브리드로 대표되는 자동차 산업은 향후 전자와 통신이 융합되어 자동차 공간이 하나의 생활공간으로 되는 시대가 도래 하는 등 더 이상 기계가 아닌 전자통신에 비중이 높은 차로 진화될 것이다.

소재분야는 우리가 약한 부분이지만 이는 곧 문명의 발전과 맥을 같이 한다. 등산을 즐기는 사람들을 익히 알고 있을 고어텍스라는 제품이 있다. 이 소재의 매출을 체크해보니 13억5천만 달러였다. 이런 소재를 하나 만든다는 것은 산업경쟁력에서 또 다른 우위를 점하는 일이다.

소재의 궁극적인 지향은 사람 피부 같은 감성을 갖고 환경에 적응하는 이른바 나노기술이 여는 신소재(탄소나노튜브)를 제작하는 것이다.

인체의 장기도 새것으로 바뀐다. 황우석 박사를 만나면 5년 내에 당뇨치료는 큰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바로 돼지 콩팥을 단 인간이 그 해답이다. 복제은행인 제대혈은행 등으로 사람의 몸에 다른 동물의 장기를 이식해 생명을 연장하는 길이 열릴 것이다.

휴대폰 자체가 단말기 기지 노릇을 할 수도 있다. 현재 단말기 기지는 2만2천 개로 1개 세우는데 약 10

IT, BT, NT를 중심으로 하는 기술진보는 우리 실생활은 물론 국가 산업지도의 변화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신용카드를 대체하는 전자화폐, 인터넷 전화의 보편화, 돼지 콩팥을 단 인간, 휴대폰 단말기의 지구화 등 새로운 세계가 열릴 것이며, 변화에 맞선 우리의 전략이 요구된다.

억 원이 든다. 사정이 이러한데 휴대폰이 자체 단말기 기지가 된다면 개인이 스스로 신호를 보내 컴퓨터와 연결해 파워를 가진 능력을 구현할 수 있는 것이다.

기술이 발전하는 만큼 개인이나 기업, 국가 차원에서 어디에 발을 딛고 먹을거리를 찾을 것인지 전략을 세워야 한다.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신성장산업이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이뤄지는 것이다.

유비티즌 시대도 흥미로운 트렌드 중의 하나이다. 'Ubitizen'의 하루를 보자면 알람으로 기상을 한다 → 침대의 자가진단 시스템을 통해 지난밤의 컨디션을 알려주고 → 화장실에서는 혈압이나 몸 상태를 체크해 병원으로 바로 보낸다 → 차량 네비게이션 시스템으로 길 안내를 받고 → 스마트 폰으로 어디서나 화상회의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컴퓨터와 센서기술이다. 편리하고 좋을 것 같지만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체크당해 개인 프라이버시의 침해 등 철학적 이슈가 제기되기도 한다.


유비쿼터스의 완성도를 높여 실생활에 사용할 경우 사생활 보호나 시스템 보호, 표준화 보호 등 우선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다.

혁명적으로 진행되는 디지털화는 우리사회의 세대별 특성, 언어문화, 관계 맺기, 생활습관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나이든 세대와 젊은 세대의 문화 차이가 크다. 인터넷 용어를 모르면 뒤떨어진다. 과거는 기성세대가 젊은 세대를 가르쳤지만 이제는 반대로 되었다.

디지털화로 인해 극단적인 다양화나 개인주의화가 커지고 있다. 젊은이들의 소비행태에서 기성세대가 이해하기 힘든 일도 있지만 젊은 세대는 봉급이 적더라도 자신을 잘 드러내기 위해서는 과감한 소비도 아끼지 않는다.

과거에는 이성이 지배했지만 현재는 감성이 지배하고 있다. 감성적 유대가 강력한 힘을 가진 젊은 세대가 주력군이 되면서 감정적 마케팅 전략이 새롭게 부상하고 있다.

시간의 가치는 계속 커질 것으로 보이며, 이에 큐레이터 솜이라고 하는 맞춤소비가 늘어날 것이다. 도우미의 전성시대로 베이비 시터, 프로채터, 퍼스널 샵퍼, 별초대행, 경품응모대행, 실버시터 등이 등장할 것으로 예견된다.

우리나라 100대 기업의 40년 생존율은 12%이다. 트렌드를 읽지 못하면 생존조차 불가능하다. 트렌드는 새로운 사업기회를 끊임없이 제시하며 끊임없는 혁신과 창조가 결합될 때만이 제 빛을 낼 수 있다. 

시복(諡福)과 시성(諡聖)

시복이란 어떤 죽은 인물이 거룩한 삶을 살았고 지금은 하늘나라에 있으며 교회에서(보편적이 아니라) 공적인 공경을 받을 만하다고 교황이 선언하는 것으로서 시복 절차에서는 그 인물의 생애, 덕행, 거룩한 평판, 직무, 저술 등이 로마에 있는 '시성성(諡聖省)'에 의해서 엄격히 조사됩니다. 이러한 절차에 의하여 시복된 사람들은 '복자'라고 불립니다.

시성은 어떤 인물이 성인이라고, 지금은 하늘나라에 있다고, 모든 신앙인들이 공경할 만하다고 교황이 선언하는 것으로, 이 선언에 앞서 시복과정이 있고, 시성 선언이 있기 전에 그 복자의 전구를 통하여 일어난 두 가지 이상의 기적이 교회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한국가톨릭대사전)